

'13년 3/4분기 수출전망 및 수출기업 체감도 분석

(2013. 6.)

목 차

- I. '13년 3/4분기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수출전망
- II. 수출기업의 수출업황 체감도 분석
 - 1. '13년 2/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 '13년 3/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3. 설문조사 개요

I. '13년 3/4분기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수출전망

□ '13년 3/4분기 수출선행지수 127.3로 2분기 연속 전기대비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기대비 0.6% 증가, 상승세를 유지하여 수출경기 회복은 지속되나,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 개선속도는 낮을 전망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추이(%) : -0.2('12. 4/4) → 0.02('13. 1/4) → 1.0(2/4) → 0.6(3/4)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세, 가격경쟁력 개선 등으로 상승함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개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가능성 등으로 수출경기의 완만한 회복 예상
- 수출단가 : 수출단가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하락하여 수출액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가격경쟁력 :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음. 다만 엔화의 평가절하로 일본기업과 가격경쟁은 심화될 전망
※ 가격경쟁력 평가지수 : (주요국 수출단가/한국수출단가)*100
- 주요 산업 : 반도체의 수주/출하 비율이 반등하는 등 IT산업의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박수출도 고가선박 인도 예정으로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13년 3/4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4% 내외 기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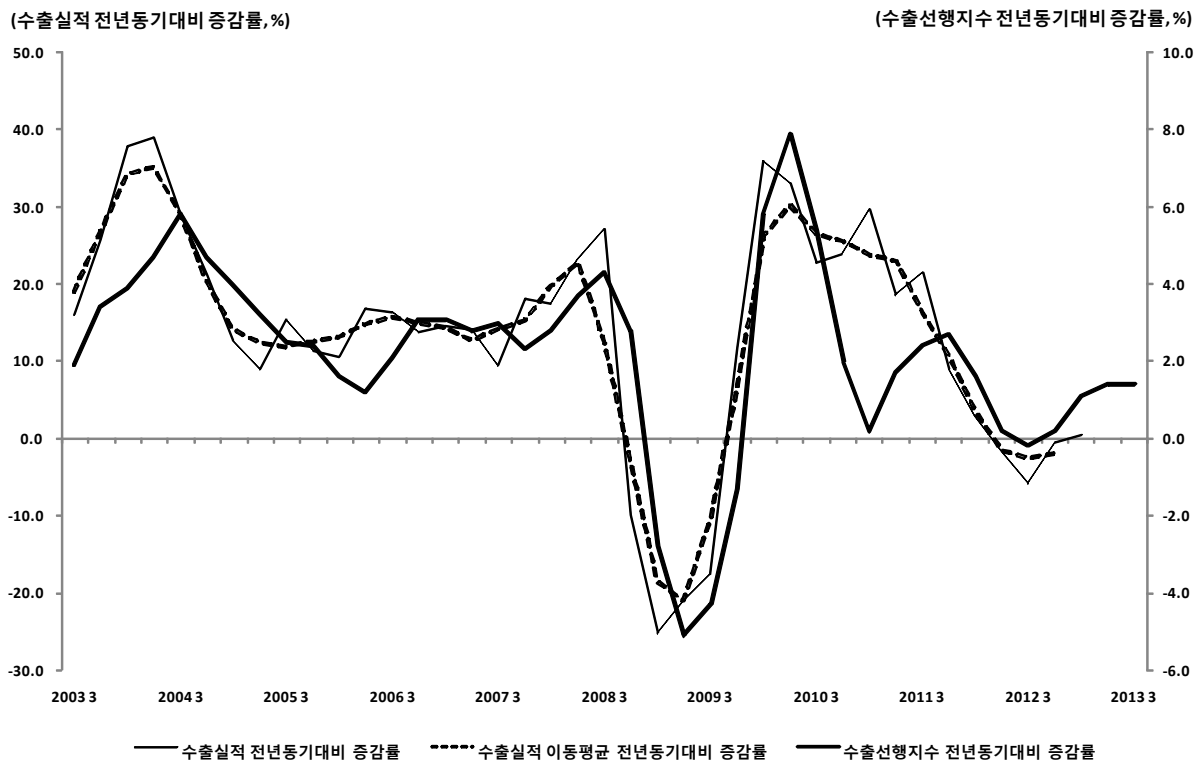
- 수출선행지수의 개선 지속으로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상승률이 제한될 전망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0.2('12. 4/4) → 1.1('13. 1/4) → 1.4(2/4) → 1.4(3/4)
-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조기종료 전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중국경제 둔화의 확대 가능성, 일본의 엔화 평가절하 정책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의 하락가능성 등이 수출회복세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11			2012				2013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24.5	125.8	125.1	123.9	124.8	125.5	125.3	125.3	126.5	127.3
전기대비 증감률(%)	2.1	1.0	-0.6	-1.0	0.7	0.6	-0.2	0.02	1.0	0.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	2.4	2.7	1.6	0.2	-0.2	0.2	1.1	1.4	1.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 차(%p)	1.5	0.7	0.3	-1.1	-1.4	-0.4	0.4	0.9	0.3	0.0

주 : 수출선행지수의 과거값은 평가요소의 과거값의 수정·변동에 따라 변경됨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경기(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주 : 1) 수출실적 이동평균은 실적 3분기 이동평균임

II. 수출기업의 수출업황 체감도 분석

1. '13년 2/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분기 기업의 수출업황 평가 2분기 연속 상승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99)는 전기(89)대비 10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아직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음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91)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 기록
 - 전반적인 수출경기 회복 영향으로 기업들의 수출물량 평가지수가 상승하고 기준치(100)도 상회한 것으로 판단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도 98로 전기대비 12포인트 상승하여 기업들의 채산성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제품원가 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원/달러환율의 상승에 따른 원화기준 수출단가 회복, 주요 수출품(반도체 등) 가격 상승 지속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크게 개선됨
 - ※ 원/달러환율 : 1,134('12. 3/4) → 1,091(4/4) → 1,084('13. 1/4) → 1,121(2/4)
 - ※ D램가격(2Gb DDR 기준) : 0.89('12. 9월) → 0.82(12월) → 1.08(13년 2월) → 1.53(5월)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102	97	92	95	99	89	87	89	99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7	89	94	91	99	92	86	86	98
수출단가 평가지수	104	97	99	100	102	94	85	94	97
생산원가 평가지수	123	119	111	117	111	107	100	106	104
수출물량 평가지수	110	101	95	99	103	92	93	91	105
수출계약 평가지수	110	102	94	99	102	92	94	91	105
자금사정 평가지수	99	94	94	94	97	92	98	98	102

- 산업별로는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황이 크게 개선된 반면 플랜트, 금속, 조선 등은 개선도가 낮음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산업	조선	자동차	기계류	석유화학	전기·전자	플랜트	금속	섬유류
'13년 1분기	96	86	87	93	91	86	84	87
2분기	96	99	97	96	103	92	93	107

2. '13년 3/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09으로 전기(110)와 비슷한 수준 유지
 - 수출기업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양상, 원화환율의 상승 반전 등으로 수출업황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6로 2분기 연속 기준치(100)을 상회함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기업들은 최근의 원화환율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으나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생산원가 압박 완화로 채산성 개선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1로 전기(117)보다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기업들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되어 수출물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103을 기록 전기(100)보다 상승, 수출기업은 자금사정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전망지수	116	108	102	99	112	99	96	93	110	109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107	105	100	101	106	99	95	94	106	106
	수출단가 전망지수	109	102	99	99	102	100	98	102	99
	생산원가 전망지수	125	111	108	110	112	104	104	103	105
수출물량 전망지수	124	116	107	101	118	102	100	99	117	111
수출계약 전망지수	123	116	106	102	118	101	100	99	119	112
자금사정 전망지수	106	106	100	98	102	100	99	93	100	103

3.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 2013년 6월 3일 ~ 6월 17일
- 설문회수 기업수
 - 총 452개 기업(대기업 148개, 중소기업 304개)